

## 건강 칼럼

## 천의 얼굴을 가진 질병, 경추척수증

5년 전부터 걸을 때 비틀거리는 증상이 있어 내원한 60대 남자 환자. 요추 척추관협착증 또는 경추 척수증이 의심됐다. 이학적 검사 상 심한 반사는 다 향진된 상태였고, MRI 검사 상 척수 압박이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었다.

고민 끝에 요추 협착증으로는 이런 보행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척수증으로 판단해, 경추 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했다. 나행히도 환자는 증상이 다 사라졌다고 신기해하며 좋아했다.

척수증은 천의 얼굴을 가진 질병이라 속기도 쉽고 오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늘 가슴 졸 이게 된다.

경추척수증은 경추 속에 있는 척수라는 중추신경이 눌리는 질병이다. 척수가 눌리게 되면 통증보다는 주로 기능장애가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양쪽 손 그리고 다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힘이 빠지고, 섭세한 동작인



정 성 수

삼성본병원 의무원장

첫기락질, 단추 채우기 등이 힘들어질 수 있다.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주먹을 쥐었다 뛰다 하는 동작이 어색해지기도 한다.

또한 하지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켜,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나타나거나 다리 조절 기능이 약해져서 걸을 때 균형이 흔들려 보행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허리에 생기는 협착증 증상과 비슷한데, 척수증 환자를 협착증으로 오인해서 치료하다가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척수

증은 그 정도가 심해지면 하지 또는 사지 마비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어서 이 두 질병을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허리에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겼을 때 보존적인 치료를 할 때 까지 해보고 안 되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경추 질환에서도 똑같이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절대로 “아닙니다”이다. 요추와 경추가 가장 다른 점은 요추에는 말초신경만 있고, 경추에는 척수라

는 중추신경이 있다는 점이다. 경추에서도 말초신경만 눌리는 목 디스크의 경우는 허리와 마찬가지로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고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은 동일하다. 그렇지만 척수가 눌리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척수가 압박돼 기능장애가 나타나게 되면,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수술을 해야 척수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척수증이 발생하고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했을 때, 40%의 환자에게서 마비가 진행됐다. 따라서 척수증은 말초신경이 눌리는 다른 질병과는 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수술을 해야 하는 질병이다.

간혹 수술이 무서워서 수술을 피하고 이런저런 치료를 받다가 시기를 놓지는 환자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더 무서운 질병인 척수증을 방지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월즈 “사람에 대한 헌신이 뭔지 알고 있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키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7일(현지시각) 위스콘신주 오클레이어 유세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월즈 주지사는 “중서부 출신으로 사람에 대한 헌신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 “증오보다는 사랑을”



7일(현지시각) 영국 브렌트포드에서 빈이민·반무슬림 극우 시위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대가 순평화를 들고 있다. 지난달 29일 어린이 댄스 수업 교실에서 발생한 폭력 난동으로 어린이 3명이 살해되고 범인이 무슬림 맹명 신청자라는 허위 정보가 확산한 이후 극우 폭력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빈극우 맞불 시위까지 열리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사설

## 유튜버 카라풀라 구속

쭈양 협박에 연루된 유튜버 카라풀라가 최근 구속됐다. 그는 이를바 유튜버 ‘카라풀라’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유튜버 ‘쭈양’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의 공갈 범죄를 부추기고 또 다른 인터넷 방송 인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쟁진 영장을 받았다.

범죄자 신상 공개로 유명해진 유튜버 카라풀라는 유튜버 구제역이 쭈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걸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라풀라는 구제역과 쭈양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할지, 아니면 협박해 돈을 쟁진자를 상의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또 다른 어느 인터넷 방송인을 협박해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방송인은 코인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는데, 이와 관련된 방송사 취재를 막아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유튜버 ‘카라풀라’는 “저는 결코 쭈양님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유튜버 카라풀라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면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 됐던 쭈양 전 남자 친구의 어느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받아왔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른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밝혔다.

또 “증거 및 가족 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변호사는 쭈양의 과거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구제역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쭈양의 정보를 넘긴 건 숨진 전 남자 친구의 요청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법 위반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남자 친구의 유서를 근거로 들었지만 유서가 조작된 의혹까지 불거졌다.

## 우려되는 쌀값 대란

수확기를 두 달여 앞두고 있는데 산지 쌀값은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농협이 대대적인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시작했지만, 농민들은 또다시 ‘쌀값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어느 농협 직원들이 대학생들에게 간단한 아침밥을 나눠주고 있다. 농협은 최근 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운동을 펼치고, 쌀 가공업체들과 함께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 “최근 쌀 재고 과잉으로 인해서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쌀 소비를 촉진해서 농가 소득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10월 정점을 찍은 뒤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던 산지 쌀값은 최근 80킬로그램에 18만 원 선으로 낙폭을 냈다.

최근 5년을 살펴보면 쌀값 폭락으로 수확을 앞둔 벼를 같아

엎기도 했던 2022년 다음으로 낮은 가격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 농협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도 55만 톤이 넘어 역시 2022년 다음으로 가장 많다.

지난달 정부가 5만 톤을 시장에서 추가 경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쌀값 하락 폭은 오히려 더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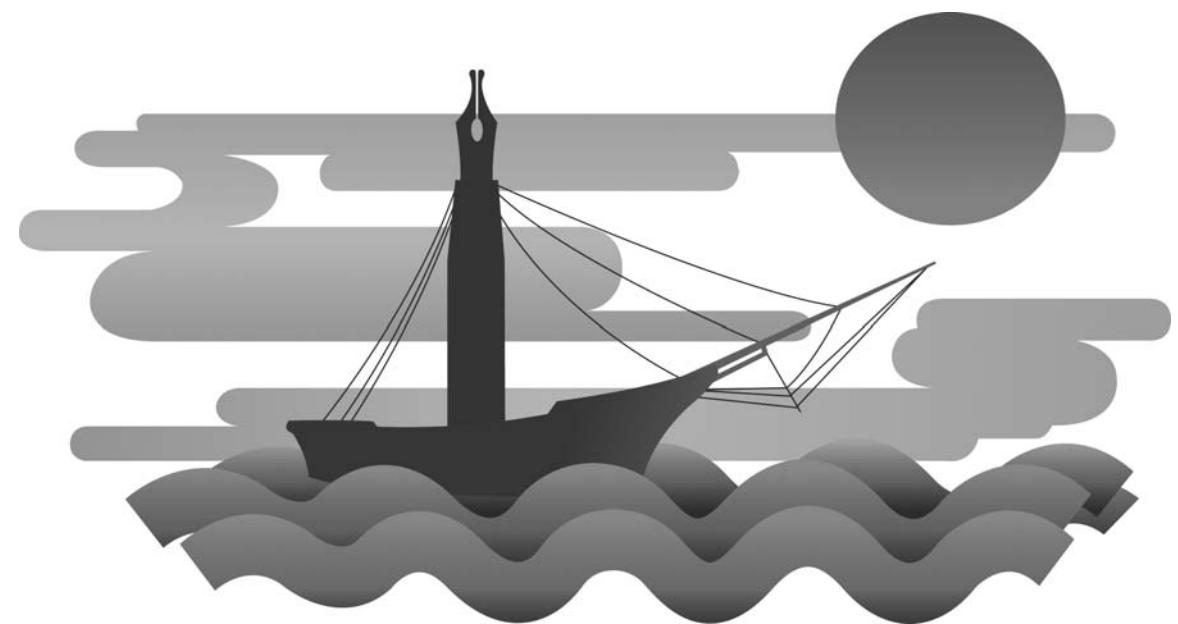
일선 농협은 “재고가 많다 보니까, 끝 있으면 또 수확기가 돌아오고, 그러나 보니까 지금 각 지역마다 쌀이나 벼를 투매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 당시 판매 촉진 등을 명분으로 10만 톤을 농협이 페인은 것도 산지 쌀값에 부담이 되고 있다.

약 2개월 후면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는 농민들은 쌀 주가 경리와 해외 원조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